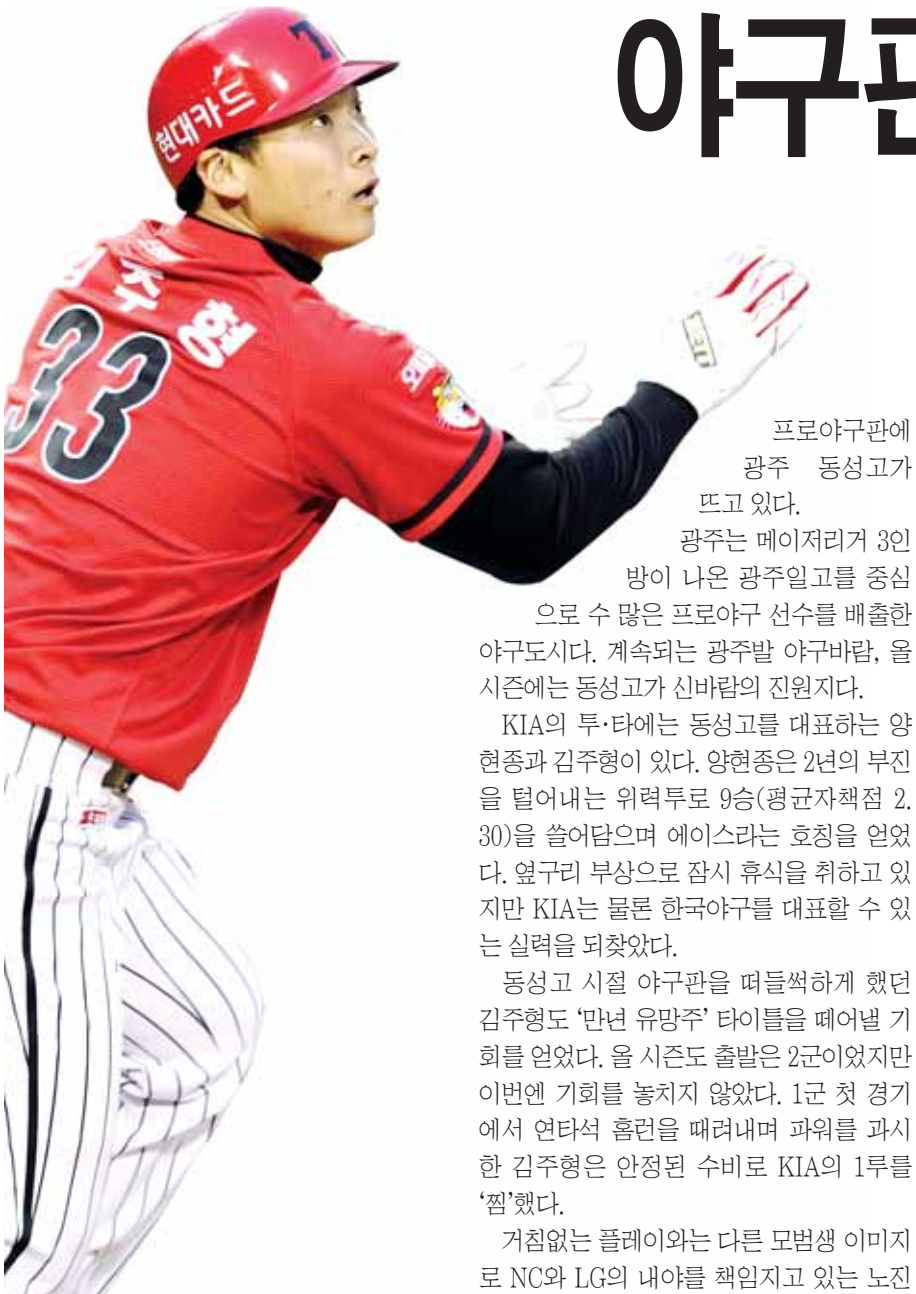


# 야구판에 동성고가 뜬다

KIA 김주형·양현종 승승장구... 모교 명예 높이며 신바람 야구

넥센 문우람·LG 문선재·NC 노진혁 '셋별 3인방' 구단 보물로



프로야구판에 광주 동성고가 뜨고 있다. 광주는 메이저리거 3인방이 나온 광주일고를 중심으로 수 많은 프로야구 선수를 배출한 야구도시다. 계속되는 광주발 야구바람, 올 시즌에는 동성고가 신바람의 진원지다. KIA의 투·타에는 동성고를 대표하는 양현종과 김주형이 있다. 양현종은 2년의 부진을 털어내는 위력투로 9승(평균자책점 2.30)을 쓸어담으며 에이스라는 호칭을 얻었다. 옆구리 부상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KIA는 물론 한국야구를 대표할 수 있는 실력을 뽐냈다.

동성고 시절 야구판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주형도 '만년 유망주' 타이틀을 떼어낼 기회를 얻었다. 올 시즌도 출발은 2군이었지만 이번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1군 첫 경기에서 연타석 홈런을 때려내며 파워를 과시한 김주형은 안정된 수비로 KIA의 1투를 '짊'했다.

거침없는 플레이와는 다른 모범생 이미지로 NC와 LG의 내야를 책임지고 있는 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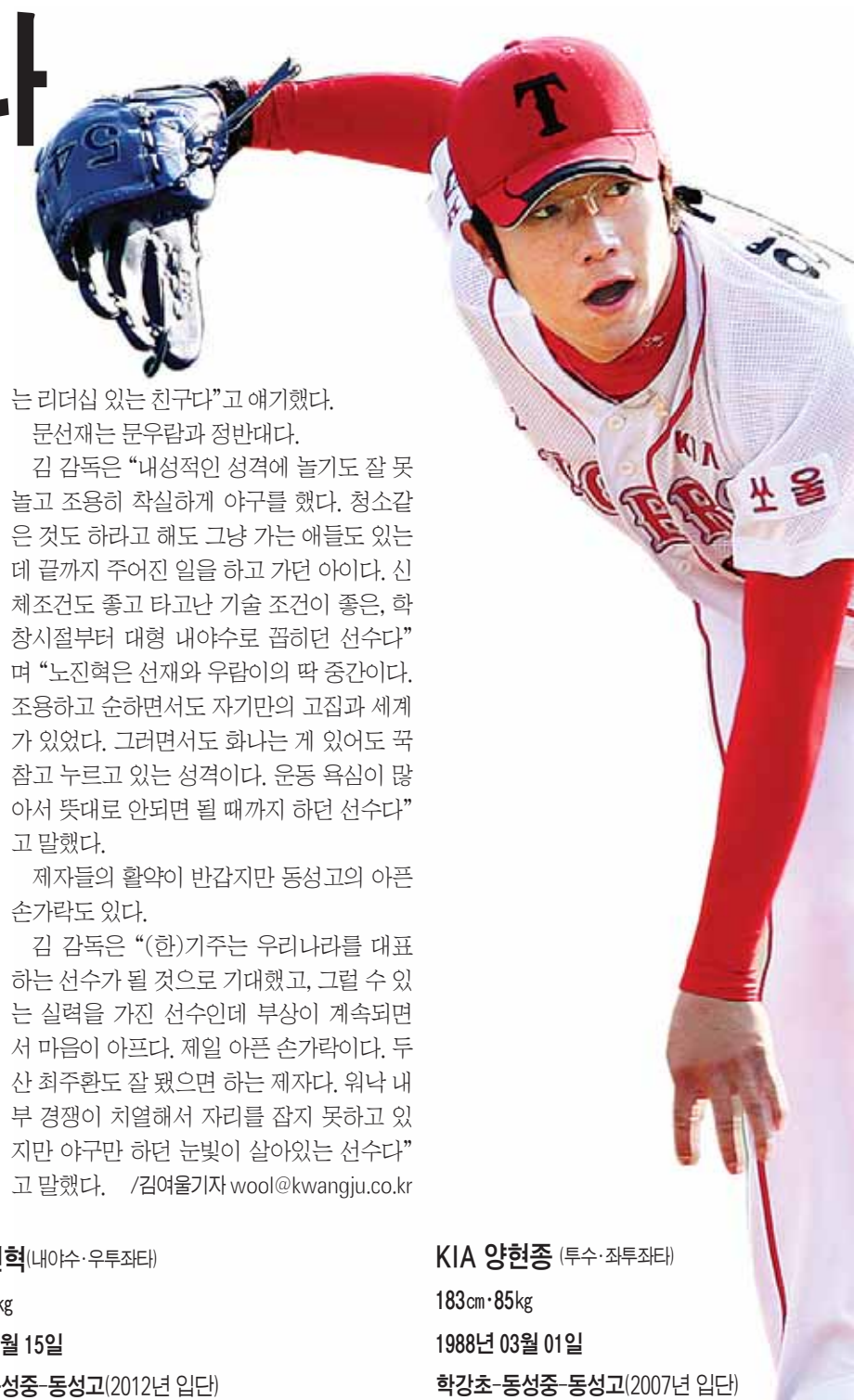
**KIA 김주형** (내야수·우투우타)  
186cm·100kg  
1985년 12월 15일  
학강초·동성중·동성고(2004년 입단)

**넥센 문우람** (외야수·우투좌타)  
177cm·72kg  
1992년 03월 08일  
하순초·동성중·동성고(2011년 입단)

**LG 문선재** (내야수·우투우타)  
184cm·80kg  
1990년 5월 20일  
서림초·동성중·동성고(2009년 입단)

**NC 노진혁** (내야수·우투좌타)  
184cm·80kg  
1989년 07월 15일  
대성초·동성중·동성고(2012년 입단)

**KIA 양현종** (투수·좌투좌타)  
183cm·85kg  
1988년 03월 01일  
학강초·동성중·동성고(2007년 입단)



는 리더십 있는 친구다"고 얘기했다. 문선재는 문우람과 정반대다. 김 감독은 "내성적인 성격에 놀기도 잘 못 놀고 조용히 착실하게 야구를 했다. 청소년 시절부터 대형 내야수로 꿈꿔온 선수"라며 "노진혁은 선재와 우람이의 딱 중간이다. 조용하고 순하면서도 자기만의 고집과 세계가 있었다. 그러면서도 하나는 게 있어도 꼭 참고 누르고 있는 성격이다. 운동 욕심이 많아서 뜻대로 안되면 될 때까지 하던 선수"고 말했다.

제자들의 활약이 반갑지만 동성고의 아픈 손가락도 있다. 김 감독은 "(한)기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될 것으로 기대했고, 그럴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선수인데 부상이 계속되면서 마음이 아프다. 제일 아픈 손가락이다. 두산 최주환도 잘 됐으면 하는 제자다. 워낙 내부 경쟁이 치열해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야구만 하면 눈빛이 살아있는 선수"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3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한국 대표팀이 9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리틀전사, 이젠 2016 올림픽

리우데자네이루 본선 무대 동료들과 엔트리 생존 경쟁

2013년 국제 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8강 진출의 과업을 달성한 21명의 '리틀 태극전사'들이 이제 3년 앞으로 다가온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본선 무대에 나서기 위한 치열한 생존 경쟁에 나선다.

이광종 감독이 이끈 U-20 대표팀은 9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각자 소속팀으로 복귀했다.

조별리그를 3위로 통과한 대표팀은 16강전과 8강전에서 두 경기 연속 120분 연장 혈투와 승부차기를 반복하는 '감동의 드라마'로 국내 팬들에게 짜릿한 감동을 선사했다. 비록 이라크와의 8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해 1983년 멕시코 대회 이후 30년 만의 4강 신화 재현에는 실패했지만 리틀 태극전사들은 끈끈한 조직력과 불굴의 투지라는 한국 축구의 전통을 되살렸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오랫동안 한숨을 먹으며 8강 진출의 성과를 이뤘지만 이제 21명의 태극전사는 혹독한 생존 경쟁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이들의 당면 목표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무대에 서는 것이다.

하지만 쉽지 않다. 홍명보 감독과 함께 2009년 이집트 대회 8강 진출의 기쁨을 맛본 21명의 선수 가운데 실제로 2012년 런던 올림픽 본선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선수는

윤석영(퀸스파크 레인저스), 김보경(카디프 시티), 구자철(볼프스부르크) 등 6명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에 터키에서 8강 신화를 일궈낸 21명도 기록권 없는 치열한 생존 경쟁을 치러야 한다.

그 첫 무대는 2014년에 예정된 '2015 아시아축구연맹(AFC) U-22 선수권대회' 예선이다. AFC는 지난해 아시아에 배정된 올림픽 출전권(3.5장)을 놓고 획기적인 변화를 썼다.

올림픽을 앞두고 1~3차 예선까지 치러온 예선 방식을 AFC U-22 선수권대회를 신설해 대신하도록 했다. 대회 1~3위는 본선 진출권을 가져가고 4위는 대륙별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된다.

올림픽 개최 직전 해에 열리는 AFC U-22 선수권대회가 올림픽 최종 예선이 된다. 이에 따라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권은 2015년에 열리는 U-22 선수권대회에서 결정된다.

2015년 U-22 선수권대회에 나서려면 내년엔 열리는 예선전을 통과해야 하는 데 이번엔 8강의 업적을 달성한 '리틀 태극전사'들이 출전해야 한다.

이번엔 U-20 대표팀의 8강 진출을 이끈 이광종 감독이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나설 U-23 올림픽 대표팀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결고리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 난재로 꼽히던 최후방 수비라인도 스리백과 포백을 번갈아 가동할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해졌다. 만만치 않은 서울 원정이지만 올 시즌 원정강제(4승1무패)를 보이고 있는 광주는 적지에서 다시 또 승리의 기쁨을 누리겠다는 각오다.

매서워지고 있는 광주에 비해 서울의 위력은 지난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7라운드 경기를 끝낸 서울의 성적은 9위. '우승 후유증'과 함께 플레이어의 질적인 면이

를 치르게 된다. 특히 최후방 수비라인과 골키퍼로부터 야기되는 불안감이 크다. 중원에서는 하대성이 예전 같지 못하고 설상가상 가장 확실한 골잡이 데얀마저 부상에 시달리고 있어 서울 최후방 감독의 고민이 깊다.

박희성, 김현성 등 과거 '홍명보의 아이들' 출신의 능력 있는 젊은 공격자원은 광주의 경계 대상. 강한 상대를 만나 선수비후역으로 나설 공간이 큰 광주로선 수비시 제공권과 몸싸움에 밀려선 안 된다.

특유의 팀워크와 자신감 그리고 공격수들의 몰론 스텀이 FA컵 이번을 만들어낼 수 있을 지 광주팬들의 눈길 삼삼불에 쏠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공사 여자유도 선수단 손선혜·신슬기·김유라(왼쪽부터).

## 광주도시철도공사 유도팀 창단 4개월만에 '금메치기'

신슬기·김유라, 전국 실업연맹서 마수결이

신생팀인 광주 도시철도공사 여자유도 선수단이 본격적인 금메달 사냥에 나섰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여자유도 선수단(단장 정재수) 신슬기(57kg급)와 김유라(52kg급)가 9일 경북 포항 만인당체육관에서 전국 28개 실업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2013 회장기 전국 실업유도연맹전에 출전해 금메달을 각각 목에 걸었다. 손선혜(48kg급)는 동메달을 차지했다.

신슬기는 57kg급 결승에서 성지은(동해시청)을 얻어치기 절반승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차지했고, 김유라도 52kg급에서 최규매(고창군청)를 유효 승으로 이기고 정상에 올랐다.

손선혜는 48kg급 경기에서 김영란(고창군청)에 아쉽게 패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앞서 공사 여자유도 선수단은 지난 4월 강원도 철원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3 춘계 전국 실업유도 최강전에서 출전해 창단 2개월만에 마수결이 메달(동메달 2개)을 획득한 바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난 3월 5일 광

주시 유도대표팀 코치를 역임한 최원(41) 감독을 주축으로 손선혜(48kg급), 김유라(52kg급), 신슬기(57kg급) 등 선수 3명으로 여자유도 선수단을 구성했다.

광주·전남 첫 여자실업팀이자 국내에서 10번째 여자유도팀이다. 그동안 광주·전남지역에 여수시청 남자유도팀 외에는 실업팀이 없었다.

공사 여자유도단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지난 28일부터 5일까지 8일간 연습에서 여성정보과학고와 여수시청 실업팀을 상대로 강도높은 전지훈련을 실시, 약점을 집중 보완하는 등 기량을 연마했다.

최원 감독은 "이번 여수 전지훈련을 통해 실전같은 훈련량을 2배로 늘리며 체력적·정신적으로 자신감이 붙었다. 선수들이 승리에 대한 열망이 강했고 대회에서 투혼을 발휘해 창단이후 첫 금메달이라는 결실을 얻었다"며 "앞으로 10월 일천 전국체전과 2015년 광주 U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선수들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빛고을 전사, FA컵서 일낸다

'빛고을 전사'들이 삼삼불 복복에 나선다. 광주 FC가 10일 오후 7시30분 삼삼 불 월드컵경기장에서 강호 FC 서울을 상대로 FA컵 16강전 대결을 벌인다.

K리그 클래식 '디펜딩 챔피언'을 만나야 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만 물오른 광주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광주는 앞선 총주전 승리로 정규리그 3위까지 치고 오르면서 선수단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7경기 연속 무패 행진 뒤 상주 상무에 1-2패를 당했지만 빠른제 전열을 가다듬으며

총주전 승을 장식할 정도로 광주의 조직력이 탄탄해졌다.

부상으로 신음하던 주축 멤버들이 사속 복귀하면서 스쿼드가 두터워졌다. 주전-백업의 역할 구분 없이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선수들은 날 나가는 광주의 또 다른 원동력이다. 최전방을 책임지고 있는 무시오의 위력은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막강해지고 있다. 토종 골잡이 박정민, 김호남의 슈팅 감각도 물이 올랐다.

김은선은 중원을 조율하며 팀 공·수의 연

K리그 1부 서울 상대 오늘 저녁 16강 대결

결고리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 난재로 꼽히던 최후방 수비라인도 스리백과 포백을 번갈아 가동할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해졌다. 만만치 않은 서울 원정이지만 올 시즌 원정강제(4승1무패)를 보이고 있는 광주는 적지에서 다시 또 승리의 기쁨을 누리겠다는 각오다.

매서워지고 있는 광주에 비해 서울의 위력은 지난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7라운드 경기를 끝낸 서울의 성적은 9위. '우승 후유증'과 함께 플레이어의 질적인 면이

지나해보다 떨어졌다든 평가다. 특히 최후방 수비라인과 골키퍼로부터 야기되는 불안감이 크다. 중원에서는 하대성이 예전 같지 못하고 설상가상 가장 확실한 골잡이 데얀마저 부상에 시달리고 있어 서울 최후방 감독의 고민이 깊다.

박희성, 김현성 등 과거 '홍명보의 아이들' 출신의 능력 있는 젊은 공격자원은 광주의 경계 대상. 강한 상대를 만나 선수비후역으로 나설 공간이 큰 광주로선 수비시 제공권과 몸싸움에 밀려선 안 된다.

특유의 팀워크와 자신감 그리고 공격수들의 몰론 스텀이 FA컵 이번을 만들어낼 수 있을 지 광주팬들의 눈길 삼삼불에 쏠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